

행정구역개편과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

-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을 중심으로 -

김 정 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o improve the relationship of local community resident of the rural-urban entry districts about the case of Daegu City that has entered Dalseong county for around 15 years since march 1995.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survey 500 number of Daegu city & Dalseong county residents. The analysis criteria about satisfaction degree on the relationship of local community resident, used in this study were the unity of residents, the reconciliation of residents, satisfying degree of settlement and life, satisfying degre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satisfying degree of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The distinctive feature of Daegu City, which are higher unity of residents, reconciliation of residents, the satisfying degree of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come out with entry of DalSeong County.

* 본 논문은 2011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주 제 어 : 주민관계성만족도, 행정구역개편, 주민통합, 주민화합, 행정서비스 만족도

Key words : satisfying degree of resident relationship,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the unity of residents, the reconciliation of residents, the satisfying degree of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1. 머리말

본 연구는 1995년 3월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달성군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도시 편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지역주민의 관계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 하고자 하였다.

도·농 통합 및 농어촌 지역의 대도시 편입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15여년이란 긴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달성군의 지역사회 주민관계성의 만족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인식된다.

즉,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은 경제 및 사회 공간구조 등 토지 이용 측면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달성군을 대구시의 생산 중심지로 연구첨단산업 중심의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조성 등을 통하여 첨단기업중심도시로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본 논문은 대구시의 달성군 편입 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또한 편입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¹⁾하여 지역사회주민의 관계성 만족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앞서, 편입 및 도·농 통합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개편효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함께 두 지역 간의 주민 관계성 만족도를 측정해 보는 선행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분석작업 결과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주민관계성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편입 만족도, 주민화합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정주생활 만족도, 지역발전 만족도 측면 등의 기준에 따라,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편입된 달성군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1995년 편입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적 범위에 한정하여 두 지역 주민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요소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분석·평가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과 범위가 된다. 이러한 연구목적달성을 위해 첫째,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두 지역 주민의 관계성 관리 및 파악이라는 측면에서의 관계성 개념, 속성, 평가 기준과 논거, 행정구역편입 및 개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 데는 주로 문헌내용분석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편입된 달성군 주민과의 관계성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는 개발된 주요지표들을 참조하여(최락

1) 1994년 이래 최근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개편위원회에 의해 편입 및 도·농 통합 등에 관한 행정구역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먼저 통합 등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실제 즉 효율성 및 목적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 2006: 211~212),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료획득방법으로 대구시와 달성군 지역주민 각 250명(총 500부)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법에 의한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분석기법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대구시와 편입된 달성군 주민들의 관계성 만족도분석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민관계성측정방법 모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조사방법도 활용하고자 한다.

II. 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배경

1. 행정구역 개편 및 관련 이론

1) 행정구역 개편

일반적으로 구역(district)이란 일정한 지역(territory)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및 기후의 외형적 특질과 같은 자연적·지리적 조건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는 경계를 갖춘 터전을 말한다. 이러한 구역은 지리적인 개념과 법적·행정적 개념을 동시에 함축하며, 전자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 공간을 구분한 지리적 범위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점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로 규정될 수 있다. 한편 행정구역은 법적·행정적 차원에서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일컫는다. 행정구역은 한나라의 행정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로는 정치적인 의도와 통치 및 집권의 의도가 작용하기도 한다(김병국 외, 1998: 9). 이러한 일정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조건을 갖는 행정구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 사회적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날 한국의 행정구역은 주민이나 국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없이 대부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기존 행정구역의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노정되었다.

첫째, 계층구조상에 있어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이원화 되어있어 이들 간의 불일치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계층 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이원적 계층구조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접근과 지방정부 및 주민들 간의 관계도 소원해 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도·농 분리적 행정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도시중심의 행정구역을 설정, 농촌은 희생되거나 도·군·구의 행정구역이 약화내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도시는 그 규모가 계속 확장되어 광역화, 대도시화 되면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는 배치되는 주민들의 자치와 참여, 그리고 접근의 차단과 제한을 초래하였다. 자치단체들 간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를 가져왔으며 중앙정부의 조정 및 통합 기능의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초의수, 1994: 218).

여기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1994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논의와 주민의견조사,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들의 관계와 광역행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기본 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구 5만 이상의 읍을 승격시켜 군과 분리된 시·군 등을 도·농 통합형의 기초자치 단체를 도입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둘째, 직할시를 격하시켜 광역시로 만들어 도에 편입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셋째, 직할시에 시·군을 편입시켜 도·농 통합형의 도시권을 형성해야 광역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그 동안 각 직할시 등이 인구 및 산업 활동 등의 확대로 말미암아 용지의 부족과 생활 시설 및 산업 시설의 입지 선정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인근 지역들도 이미 대도시의 산업 및 생활권에 깊이 동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불편과 생활기반시설의 부족을 겪어야만 했다.

넷째, 복잡한 행정계층구조를 축소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려면 읍·면·동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이다.

다섯째, 인구, 산업 및 경제 활동 과밀화 등으로 너무 거대해진 서울을 행정구역상 분리하여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최락인, 2006: 208).

2) 관련 이론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관련 이론과 주민관계성 분석을 위한 체제 모형이론이 제기된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관련이론은 아래와 같다.

(1) 기능주의 접근이론

자치행정구역의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여기에는 첫째, 정주 생활권 이론이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영역인 정주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지역과 그 배후의 농촌지역을 통합하여 자치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지역 단위가 규모의 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적정도시 규모 논리 등을 제기하는 입장이다(Byrne, T., 1994).

둘째, 도·농 통합 구역개편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일정한 지리적 권역을 개발 단위로 한 자연적, 인적인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기초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초 수요 접근법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도시지역을

포함한 통합지역을 그 개발단위로 하는 도·농 지구 개발 접근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도·농 통합 이론의 그 배경은 프리드만(Friedman)과 더글러스(Duglas)가 주창한 기초 수요에 입각한 도·농 접근법(agropolitan approach)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성장거점이론(growth poll theory)을 비롯한 효율적 성장위주의 지역 불균형 성장 이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농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성립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Friedman, J. 1981;최락인, 2006: 209).

셋째, 공공선택론자들에 의한 티부(Tiebout)가설이나 오우츠(Oates)의 조화이론 등이 있다. 먼저 티부는 행정구역이 지방정부간의 독자적 관리능력과 다양한 경쟁이 정치적대응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준다고 보았다. 즉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기준으로 최선의 비용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향유하고자 정치적 결정을 하고 주민들은 가장 적당한 지방정부를 찾아 투표한다고 보고 있다(Tiebout, 1972; 이승철, 2011: 292). 그리고 오우츠(Oates)의 조화이론은 행정구역조정과정에서 행정기능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선호의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는 동시에 주민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는 상충된 두 목표들의 절충·조화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방정부행정구역의 적정규모는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이 미치는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Oates, 1972: 31-63; 박기관, 2007: 68-70).

한편,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을 위한 관련이론으로는 체제모형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민관계성 분석의 체제모형이론

도·농 통합에 대한 두 지역 주민간의 관계성 측정 및 관리전략 모색을 위해서는 체제이론 모형을 원용하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체제모형의 내부구조(inter structure)는 구성단위들(units)사이의 관계성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체제이론은 사물의 속성 보다는 기본적으로 관계성 구조 및 상호의존성 문제를 설명한다. 여기에 체제이론은 관계성을 정보, 에너지 및 자원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교환적 속성이 바로 관계성(relationship)을 규정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밀러(Miller, 1978)는 체제를 관계성을 지닌 상호작용하는 단위들로 보고 있다.

2. 행정구역 개편 논거와 평가기준

1) 행정구역 개편 논거

도·농 통합 및 군지역의 대도시 편입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킴으로써 양 지역이 갖고 있는 기능을 상호교환하거나 보완하여 대도시에 소외되어 발전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중소도시와 그 배후지역인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적 접근방식을 말한다.

도·농 통합 및 편입 등의 자치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에서 그 긍정적인 측면의 함의와 문제점의 양면성이 있는데 이 함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최락인, 2006: 210~211).

먼저 그 하나는 도·농 통합 및 편입의 그 긍정적인 측면의 함의로서

① 도시와 농촌의 균형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즉, 이는 개발 권역을 일치시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도시지역 주민에게는 녹지와 여가 공간 및 산업 입지 공간 등을 제공하고 농촌지역 주민에게는 도시수준의 생활환경 및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②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통합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농의 분리로 인한 중복관리비용 및 중복투자 등의 가외비용(redundancy cost)을 최소화하여 공공서비스의 단위 비용이 감소되고 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주민 정주생활권과 자치구역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다. 도·농 통합 및 편입은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의 통합과 편입을 통하여 행정구역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④ 비용의 절감을 기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권이 같은 시·군의 통합 및 편입을 통하여 행정이 일원화되면 행정기구 및 인력의 감소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서비스 비용의 절감과 함께 세출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 개발에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⑤ 외부효과의 내실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도·농 통합 및 편입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광역화하여 비용부담 권역과 편익수혜권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외부효과의 내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도·농 통합 및 편입 등의 자치구역 개편에 따른 문제점인데, 이는 아래와 같이 지적되고 있다.

① 도·농 통합 및 편입은 대체로 성장지역인 도시와 침체지역인 농촌이 공존하고 있어 도·농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② 행정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대응성(responsibility)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민과 가까운 정부 및 행정기관이어야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도·농 통합 및 편

입으로 공간규모가 광역적이라서 지역주민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의 확보에 어려울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 주민의 행정참여 또는 행정 통제 등의 자치와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거나 어렵게 된다.

③ 행정서비스의 이질성(異質性)과 목표양립의 곤란성이 존재한다. 이는 도·농 통합 및 편입으로 인한 행정 업무가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관할함으로써 이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도시 주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양식의 차이와 이에 따른 행정 서비스 수요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양 지역 주민들에게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으며, 시·군에 대한 행정수요와 공급은 형태와 내용면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체제가 시는 구·동으로 군은 면·리로 구성되어 일괄적이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의 행정에 있어 혼선이 야기 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 지역인 도시와 침체 지역인 농촌의 공존으로 도·농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양립시키기가 쉽지 않다.

④ 농촌지역의 토지 이용 질서의 혼란과 환경 파괴, 혐오시설의 입지 등으로 주민 간의 불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공간 입지의 부족으로 인한 도·농 통합 및 편입은 농촌 지역의 상업업 기능 및 산업 공단 입지의 외연 확산 조장 및 방치로 토지이용의 난맥상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더더욱 쓰레기 매립장 내지 화장장 건립 등 혐오시설의 농촌 지역입지는 주민 간의 불화를 더욱 조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2) 평가기준

편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 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구시와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있어서 주민 관계성 만족도 분석 범위를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한 평가 기준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기에 먼저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밀스포우(Millspaugh, 1936)는 첫째, 자치단체구역은 주민의 정주·공동 생활권과의 일치 여부 둘째, 능률적인 자치행정에 적합한 행정단위 셋째, 자주적 재원조달 가능 단위 넷째, 집행기관에의 주민접근용이성 등이다.

리프만(Lipman, 1949)은 첫째, 면적이나 인구가 자치단체 별로 유사하도록 설정할 것 둘째, 지리적 요소, 산업분포, 경제 생활의 권역적 요소, 전통적·역사적 요소 고려 셋째, 행정구역의 평준화 등을 제시하였다.

웨슬러(Fesler, 1964: 49-153)는 첫째, 자연 지리적 조건 둘째, 교통통신의 발달수준 셋째, 행정의 능률성 넷째, 필요한 재원의 자주적 조달 능력 다섯째, 주민참여와 통제의 활성화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킹덤(Kingdom, 1991)은 첫째, 역사성 둘째, 주민의 접근성 셋째,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 넷째, 경제적 규모성 다섯째, 정치적 역량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김병준(2001: 91-94)은 사회경제적 변화, 자치단체간의 균형, 세계화의 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창호(2007: 155-168)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구획획정기준 변화, 자연조건의 변화, 도시권역의 확대, 전자행정의 발달, 남북통일예의 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재원(2002: 119-138)은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행정구역설정에 대한 기준을 균등성의 원칙, 생활권과 경제권과의 일치, 공동체적 연대감, 참여와 통제의 용이성, 주민선호의 충족성, 규모의 경제성, 외부효과의 최소화, 행정 비용의 최소화, 재정 능력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소순창, 2010: 32-33). 이를 도표화 한 것이 아래 <표-1>이다.

<표-1> 행정구역 개편 시 고려평가기준

| 시기 | 학자 | 내용 |
|------|------------------|---|
| 1936 | 밀스포우(Millspaugh) | 정주·공동 생활권과의 일치, 능률적인 자치행정단위, 자주적 재원조달 단위, 주민의 행정기관 접근용이성 |
| 1949 | 리프만(Lipman) | 면적·인구규모의 유사성, 지리적 요소, 권역적 요소, 전통적·역사적 요소, 행정구역의 평준화 |
| 1964 | 웨슬러(Fesler) | 자연·지리적 조건, 교통통신의 발달수준, 행정의 능률성, 자주적 재원조달능력, 주민참여·통제활성화 |
| 1991 | 킹덤(Kingdom) | 역사성, 주민접근성,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 경제적 규모성, 정치적 역량성 |
| 2001 | 김병준 | 사회경제적변화, 자치단체간의 균형 세계화의 위상 |
| 2002 | 유재원 | 균등성, 생활권과 경제권의 일치성, 공동체적 연대감, 참여와 통제의 용이성, 주민선호의 충족성, 규모의 경제성, 외부효과의 최소화, 행정비용의 최소화, 재정능력 |
| 2007 | 최창호 |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구획획정기준의 변화, 자연조건의 변화, 도시권역의 확대, 전자행정의 발달, 남북통일예의 대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농 통합 및 편입의 주요 목표는 주민 화합의 도모, 행정 비용의 절감,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광역 행정의 효율적 수행, 지방 재정의 개선, 주민 생활의 편의 증진,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 등이다. 여기에 편입지역 지역사회 주민의 관계성 만족도 분석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평가 기준 요소로 본 논문은 주민편입 만족도, 주민화합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정주·생활 만족도, 지역발전 만족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5가지 만족도에 대한 개념정의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기에 앞서 먼

저, 주민관계성 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주민관계성 만족도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성립되려면 양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을 알아야 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두 지역주민들의 관계성이 성립되려면 한쪽의 행위가 상대방의 삶과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단 이 점을 인지하면 두 지역 주민들간의 관계성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앤더슨(Anderson)은 관계성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의 인지적 활동의 산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본 논문에서 주민관계성(resident relationship)은 두 주민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활동의 유형화된 산물 및 형태(patterned relationship)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만족도는 두 지역 주민 간에 인지되는 쌍방 간의 어느 정도 호의(goodwill)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충족된 것에 대한 느낌 및 인지도로 이해 하고자 한다.

② 주민편입 만족도

지난날의 도·농 분리적 행정구역 개편은 동일 문화 및 생활권을 시·군으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체감과 지역 공동체 의식(연대의식)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생활권·문화권이 동일한 시·군을 통합하거나 편입시킴으로써 지역 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의 광역화함으로써 외부효과의 내실화를 촉진시키는 광역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Lyons & Lowery, 1989).

주민편입 만족도 부문에서는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주민의 의견, 주민들의 편입에 대한 만족도 등의 요인들을 분석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③ 주민화합 만족도

주민편입은 군의 대도시 지역 편입을 지역주민의 연대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여기에 주민화합 만족도 분석을 위해 기존 대구 시민과 편입 군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에 대한 견해 및 만족도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의 측정지표로서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아 주민화합 만족도의 분석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²⁾

④ 행정서비스 만족도

2) 달성군의 편입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와 주민화합과 혐오시설입지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대구 시의 업무 담당자인 시민봉사 및 자치행정과장과 달성군의 주민지원과장의 면담결과 큰 문제없이 편입효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곧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도·농 통합 및 편입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통한 주민 생활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는 행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화, 각종 공공시설의 공동설치와 운영, 중복 관리 및 투자비용 절감 등을 도모 할 수 있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주민대응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측정에서는 공무원 친절도, 관련 업무 처리 속도, 행정 기관에의 접근성, 행정의 주민참여도, 주민에 대한 행정의 대응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⑤ 정주·생활 만족도

도·농 통합 및 편입에 의한 도로 교통, 주택과 상수도, 환경, 교육, 복지, 보건 의료, 문화 예술 등의 영역에서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더 나아졌는지에 대한 정주의식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 측정의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⑥ 지역발전 만족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위의 여러 가지 주민관계성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발전 수준 및 발전 방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의 결과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지방행정구역체제 개편(통합, 편입)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개편의 대상제시 논점에 있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관련된 역할을 강조할 경우 통합과 대규모 자치단체를 요구하는 측면과 민주성과 지방정부의 정체성 그리고 전통적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가치를 강조할 경우 소규모의 지방정부를 지지하는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하혜수, 김영기, 2006: 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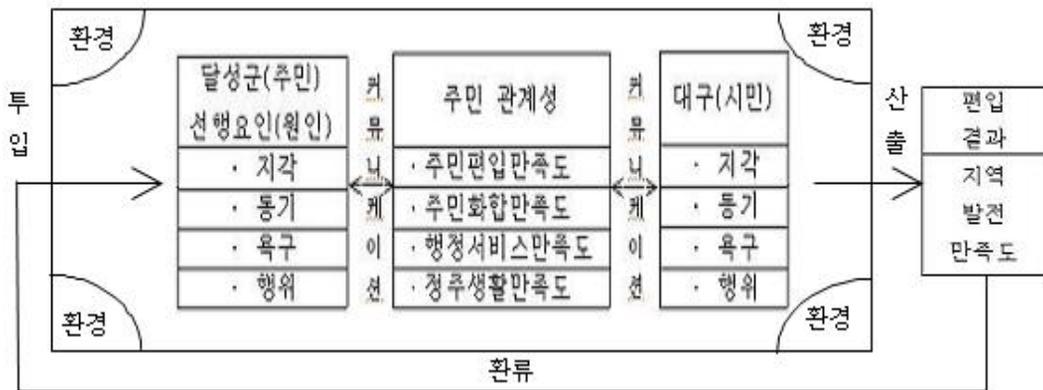
| 구분 | 기본 방향 | 대안제시 | |
|----|------------------|--|---|
| 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쟁력강화 · 고 비율, 저 비율의 행정체제구축 ·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주민요구의 대응성 제고 · 자치단체 중심의 실질적인 대북교류협력 지원체제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 자치구제도의 개편안(권한조정모형, 자치권제한모형, 준 자치단체모형, 행정구모형) -도·시군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시군통합모형, 특례자치정시지정모형, 도의 기능전환모형, 도시군 기능통합모형)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적인 필요성 : 사회환경변화대응,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 · 처방적필요성:다계층의 문제, 지방행정구역의 부적절성, 행정계층간의 기능 배분의 불합리성 등의 처방 · 자치제도적필요성 : 지방정치와 자치행정적 효율성 제고, 재정경제적 효율성 제고, 사회문화적 효율성 제고 · 이론적 필요성 : 정부간 관계론, 신공공관리론, 지방행정이념론, 정부생활 권역론, 적정규모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1계층안 : 도의폐지, 시군통합으로 광역화, 읍면동 준자치 기관화 -자치2계층안 : 도농통합으로 도시군 기능 분리,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도로 이관 -혼합개편안 : 대도시지역은 자치1계층, 도지역은 자치2계층 유지 |
| 개인 | 초의수 (19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개편과 지역발전 |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
| | 심익섭 (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대응 및 민주성과 능률성 강화 · 낭비중복 행정의 방지 및 도시 행정의 통일성 일체성 확보 · 행정기능의 지방이양 효과 증대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 | -도: 시군 기능 분리 |
| | 김해룡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지방분권적 행정체제의 확립 · 지역균형발전의 수단 · 지역갈등의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의 지방자치화 -도의 폐지(도는 국가행정기간화) -특별시 광역시 현행유지 |
| | 육동일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력 제고 · 고효율 저비용의 자치행정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 -현행의 광역과 기초 2계층 유지, 도와 시군의 기능분리 모형 |
| | 김정현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관계성측정 | -자치행정PR전략 |
| | 홍준현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계층, 기초자치단체구역,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 해결 | -도와 시군의 기능분리 모형 |
| | 최락인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주민관계성 만족도 연구 | -통합순천시 사례 |
| | 하혜수·김영기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성과 주민자치의 공동체 구현 · 자립형 지방정부 구현 · 지방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 -경남지역의 권역별 광역시화 |
| | 정덕주 (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제고 ·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 · 지방자치단체의 근접성, 대응성, 행정적 효율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기능의 전환(시군과 중복기능 시군으로 이양하고 나머지는 국가행정화) -인구규모별 특례제도의 도입 -자치구의 준자치단체화 |
| | 김정현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공중관계성 | -위기인식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

자료 : 이승철(2011). pp.297~298 재작성.

III.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

1. 연구 설계모형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의 행정조직과 두 지역 시민들 간의 좋은 관계성 측정 및 관리전략 모색을 위해서는 체제이론 모형을 원용하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체제의 구조는 구성단위들 사이의 관계성³⁾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즉 체제이론은 사물의 속성보다는 기본적으로 관계성구조 및 상호의존성의 문제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계성에 대한 선행요인들로는 관계성의 형성에서 원인(cause)으로 여겨지는 지각(perception), 동기, 욕구,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개방체제모형에서 선행요인은 체제에 대한 변화, 압력 또는 긴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조직과 시민들과의 관계성의 결과(consequences)는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행정조직 안과 밖의 목표를 달성하며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출로 이해된다.



(그림-1)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틀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 설계모형 내지 분석틀을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은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성형성과 영향력에 관한 이론적 명제를 개발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시한다. 즉 이 연구 설계모형은 주민관계성 만족도가 변화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제시된다. 대구시 행정조직과 편입 이후 달성군 주민과 대구시민 사이의

3) 관계성의 개념 및 속성에 있어서 밀러(Miller, 1978) 역시 체제이론으로서의 관계성은 정보 에너지 및 자원의 교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퍼거슨(Ferguson, 1984)은 조직과 시민의 질적 관계성에 관한 장기지표로 다섯 가지의 관계성의 속성을 ① 역동성 대 정체성, ② 개방성 대 폐쇄성, ③ 조직과 시민이 관계성에 대해서 갖는 만족도, ④ 관계성에서의 힘의 분배 및 견제, ⑤ 상호이해, 동의 및 일치로 전제 한 번 있다.(김정현,2005:272)

관계성 만족도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결성(communication linkage)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행정조직과 시민들 간의 관계행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이해해야 행정조직 및 시민들 간의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현, 2005: 272-273).

2. 변수선정 및 조사방법

지역사회 주민의 관계성확보를 위한 측정·평가를 위해서 달성군 지역주민 250명과 기존의 대구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주민의 관계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은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의 주민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20개 문항의 질문을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문항은 대부분 “편입 이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 형식을 취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폐쇄형 질문방법(closed-questionnaire)을 사용하였고 응답 내용에 대한 척도 구성은 주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에 의거 하였다. 즉 ‘매우 불만족하다’는 1점, ‘약간 불만족하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만족하다’는 4점, ‘매우 만족하다’는 5점을 응답점수로 부여하였다.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의 변화된 지역사회주민의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래 <표-3>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3> 주민 관계성 측정기준 및 변수

| 구분 번호 | 측정기준 | 측정변수 |
|----------|-----------|---|
| 1 | 주민편입 만족도 | · 편입에 대한 의견 · 주민편입 |
| 2 | 주민화합 만족도 | · 주민화합도 · 혐오시설 입지 선호도 |
| 3 | 행정서비스 만족도 | · 민원업무 · 행정기관접근용이성, 처리 신속성 · 행정정보의 접근성 · 행정 대응성 · 주민 참여도 |
| 4 | 정주·생활 만족도 | · 정주의식 만족도 · 생활기반시설 만족도 |
| 5 | 지역발전 만족도 | · 발전수준 만족도 · 발전방향 만족도 |

(최락인, 2006: 211~212 재작성)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분석은 빈도분석, 요인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 응답 문항별로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한 평균 평점을 추정하여 만족도를 분석·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인 변수로서의 제 관계성 만족도가 결과변수인 지역발전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도 실시하였다.

3. 응답자의 통계학적 특성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이후 두 지역 주민 관계성 만족도를 분석하기위해 대구시와 달성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500부를 배부하여 450부가 회수되어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31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86.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성별 | 남성 | 190 | 44.1 |
| | 여성 | 241 | 55.9 |
| 연령 | 20-29세 | 51 | 11.9 |
| | 30-39세 | 107 | 24.8 |
| | 40-49세 | 158 | 36.6 |
| | 50-59세 | 115 | 26.7 |
| | 60세 이상 | 22 | 5.1 |
| 직업 | 제조업(자영업) | 39 | 9.0 |
| | 사무·관리(공무원) | 232 | 54.5 |
| | 판매·서비스업 | 47 | 11.0 |
| | 주부 | 48 | 11.3 |
| | 학생(기타) | 65 | 15.3 |
| 학력 | 중졸이하 | 16 | 3.7 |
| | 고졸 | 88 | 20.5 |
| | 대졸 | 289 | 67.0 |
| 거주기간 | 대학원졸 | 38 | 8.8 |
| | 5년 이하 | 89 | 20.7 |
| | 6년-10년 | 92 | 21.4 |
| | 11-15년 | 83 | 19.3 |
| | 16-20년 | 63 | 14.7 |
| 월소득 | 21년 이상 | 104 | 24.0 |
| | 100만원 이하 | 53 | 12.2 |
| | 101-200만원 | 110 | 26.8 |
| | 201-300만원 | 160 | 37.1 |
| | 301-400만원 | 84 | 19.4 |
| 거주지역 | 400만원 이상 | 24 | 5.5 |
| | 경북(달성군지역) | 100 | 23.2 |
| | 대구(남구, 달서구, 수성구 외 기타 지역) | 331 | 76.8 |

조사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90명(44.1%), 여성 241명(55.9%)으로 여성응답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가 158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5명(26.7%), 30대 107명(24.8%), 20대 51명(11.9%), 60세 이상 22명(5.1%)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04명(24.2%)인데 비해 대졸이상인 327명(75.8%)으로 응답자의 학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과 기한은 대구지역 거주자가 320명(76.9%)으로 높았고 21년 이상이 104명(24.0%)으로 거주기간이 긴 응답자가 많았다. 가계소득의 경우 201만원-300만원이 160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301만원-400만원 84명(19.4%), 200만원 이하 163명(37.8%)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의 경우 사무·관리(공무원) 232명(54.5%)으로 가장 높았고, 학생 65명(15.3%), 주부 48명(11.3%), 판매·서비스업 47명(11.0%), 자영업 39명(9.0%)순으로 나타났다.

4. 빈도 및 교차분석

1) 빈도분석

(1) 편입에 대한 주민의견 및 만족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이 이루어진지 15년이 지난 현재,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편입에 대한 시각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새로운 주민관계성 확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5> 편입에 대한 주민의견 및 만족도

| 내용 기준(척도) | 빈도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누적퍼센트 | 평균 |
|--------------|-----|--------|-------|-------|------|
| 매우불만 | 6 | 1.4 | 1.4 | 1.4 | 3.38 |
| 약간불만 | 38 | 8.8 | 8.8 | 10.2 | |
| 보 통 | 206 | 47.8 | 47.8 | 58 | |
| 약간 만족 | 150 | 34.8 | 34.8 | 92.8 | |
| 매우 만족 | 31 | 7.2 | 7.2 | 100.0 | |
| 합 계 | 431 | 100.0 | 100.0 | | |

편입에 대해 주민의 의견 및 만족도는 불만이 10.2%, 보통이 46.8% 만족이 42%로 편입에 대한 불만족 상태가 다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만족에 대한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된지 15년이 흘렀으나 처음부터 편입에 대한 주민의견이 크게 엇갈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대구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의 편입에 대한 반대 의견 및 불만이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이상(평균 3.38)의 응

답을 하여 찬성과 만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불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구시 관리에 있어 더욱 주민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제기된다.

(2) 주민통합에 대한 만족도

<표-6> 주민통합에 대한 만족도

| 내용 척도 | 빈도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누적퍼센트 | 평균 |
|----------|-----|--------|-------|-------|------|
| 매우불만 | 3 | 0.7 | 0.7 | 0.7 | 3.22 |
| 약간불만 | 34 | 7.9 | 7.9 | 8.6 | |
| 보 통 | 196 | 45.5 | 45.5 | 54.1 | |
| 약간만족 | 166 | 38.5 | 38.5 | 92.6 | |
| 매우만족 | 32 | 7.4 | 7.4 | 100 | |
| 합 계 | 431 | 100.0 | 100.0 | | |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화합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만족이 45.9%, 불만족이 9.3%, 보통이라는 응답이 45.5%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입에 의한 주민통합도가 주민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나 처음 편입 시에는 농촌 지역인 달성군 주민들의 편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 갈등이 많았으나 주민통합도 차원에서는 편입 후 인식상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주민의 관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편입에 대한 의견 표명보다 편입 이후의 자치 행정의 개선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주민통합에 많은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편입후의 주민통합도 측면에서는 주민통합도에 관한 측정과 혐오시설 입지 선호도에 관한 측정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주민통합도는 3.22로 다소 개선이 되고 있으나 아직 혐오시설유치 등 지역이기주의 요소에 대해서는 평균 3.06으로 가장 낮아 확연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행정서비스 만족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이후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청·군청·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대한 방문경험과 공무원의 친절도, 행정서비스지원태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에 대한 정보이용 접근성, 주민에 대한 행정 대응성,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속도, 행정예의 주민참여도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표-7> 행정서비스 만족도

| 척도 \ 내용 | 빈도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누적퍼센트 | 평균 |
|---------|-----|--------|-------|-------|------|
| 매우불만 | 3 | 0.7 | 0.7 | 0.7 | 3.39 |
| 약간불만 | 30 | 7.0 | 7.0 | 7.7 | |
| 보 통 | 207 | 48.0 | 48.0 | 55.7 | |
| 약간만족 | 187 | 36.4 | 36.4 | 92.1 | |
| 매우만족 | 34 | 7.9 | 7.9 | 100.0 | |
| 합 계 | 431 | 100.0 | 100.0 | | |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설문결과 대체로 주민들의 만족도가(평균 3.39) 높게 나타났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7.7%이고, 만족이 44.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미루어 보아 편입후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비록 1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주·생활만족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이후 주민생활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났다.

<표-8> 정주·생활만족도

| 척도 \ 내용 | 빈도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누적퍼센트 | 평균 |
|---------|-----|--------|-------|-------|------|
| 매우불만 | 7 | 1.6 | 1.6 | 1.6 | 3.49 |
| 약간불만 | 43 | 10.0 | 10.0 | 11.6 | |
| 보 통 | 190 | 44.1 | 44.1 | 55.7 | |
| 약간만족 | 151 | 35.0 | 35.0 | 90.7 | |
| 매우만족 | 40 | 9.3 | 9.3 | 100.0 | |
| 합 계 | 431 | 100.0 | 100.0 | | |

전반적인 주민생활의 만족도는 불만이 11.6%이고 만족이 44.3%, 보통이 55.7%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최락인(2006)의 순천시 통합 사례에는 일치 하였으나 초의수(1994)의 김해시 사례와는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두 도시 간 통합사례의 모형이 다른 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5) 지역발전의 전체 만족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이후 지역발전수준, 발전 방향등에 대한 설문결과 아래 <표-9>과 같이 불만이 9.5%, 만족이 46.2%, 보통이 44.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판명되었다. 편입초기에는 편입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커 빠른 시간에 가시화 될 것으로 달성군 주민들이 성급하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촌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등으로 불만이 가중되었으나⁴⁾, 15년이 지난 오늘 달성군을 첨단기업 중심도시로 개발하고자 계획함으로써 점차 지역발전을 위한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두지역간의 주민관계성 만족도는 5개의 만족도 측면에서 대구시주민의 만족도가 달성군지역주민의 만족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지역발전의 전체만족도

| 내용 척도 | 빈도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누적퍼센트 | 평균 |
|----------|-----|--------|-------|-------|------|
| 매우불만 | 7 | 1.6 | 1.6 | 1.6 | 3.42 |
| 약간불만 | 34 | 7.9 | 7.9 | 9.5 | |
| 보 통 | 191 | 44.3 | 44.3 | 53.8 | |
| 약간만족 | 153 | 35.5 | 35.5 | 89.3 | |
| 매우만족 | 46 | 10.7 | 10.7 | 100.0 | |
| 합 계 | 431 | 100.0 | 100.0 | | |

2) 교차분석

두 지역 주민들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⁵⁾ 주민편입만족도에 있어서는 성별과 연령적 특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고, 주민화합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과 월소득,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공무원은 만족도가 높는데 반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차이가 있었다. 정주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특성(성별, 연령, 직업, 학력, 거주기간 및 지역, 월소득)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가 나타났다(표-10, 표-11, 표-12).

-
- 4)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 된 지 13년이 되었지만 혜택보다는 부담만 늘어 소외감을 느끼고, 혁신도시 사무산, 위천국가공단무산, 지하철연장무산,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매곡정수장다사상수원 보호구역 확대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등으로 군민들의 상실감이 크다(2010.3.11.매일신문).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만족도의 차이분석결과는 분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민편입에 대한 만족도

| 구분 | | 매우 불만 | 약간 불만 | 보통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 합계 | 유의 확률 |
|----|--------|--------|---------|-----------|-----------|---------|-----------|---------------------------|
| 성별 | 남성 | 5(1.2) | 22(5.1) | 81(18.8) | 68(15.8) | 14(7.4) | 190(44.1) | $x^2 = 8.696$ (.069*) |
| | 여성 | 1(0.2) | 16(3.7) | 125(29.0) | 82(19.0) | 17(3.9) | 241(55.9) | |
| | 합계 | 6(1.4) | 38(8.8) | 206(47.8) | 150(34.8) | 31(7.2) | 431(100) | |
| 연령 | 20-29세 | 0(0) | 7(1.6) | 29(6.7) | 13(3.0) | 2(0.5) | 51(11.9) | $x^2 = 24.807$ (.073*) |
| | 30-39세 | 1(0.2) | 9(2.1) | 54(12.6) | 32(7.4) | 4(0.9) | 100(23.3) | |
| | 40-49세 | 3(0.7) | 5(1.2) | 62(14.4) | 54(12.6) | 18(4.2) | 142(33.0) | |
| | 50-59세 | 2(0.5) | 14(3.3) | 48(11.2) | 45(10.5) | 6(1.4) | 115(26.7) | |
| | 60세 이상 | 0(0) | 3(0.7) | 12(2.8) | 6(1.4) | 1(0.2) | 22(5.1) | |
| | 합계 | 6(1.4) | 38(8.8) | 205(47.7) | 150(34.9) | 31(7.2) | 431(100) | |

<표-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민화합에 대한 만족도

| 구분 | | 매우 불만 | 약간 불만 | 보통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 합계 | 유의 확률 |
|------|-----------|--------|---------|-----------|-----------|---------|-----------|----------------------------|
| 학력 | 중졸이하 | 1(0.2) | 4(0.9) | 8(1.9) | 3(0.7) | 0(0) | 16(3.7) | $x^2 = 27.246$ (.077**) |
| | 고졸 | 1(0.2) | 6(1.4) | 51(11.9) | 26(6.0) | 4(0.9) | 88(20.5) | |
| | 대졸 | 1(0.2) | 22(5.1) | 121(28.1) | 118(27.4) | 26(6.0) | 288(67.0) | |
| | 대학원졸 | 0(0) | 2(0.5) | 15(3.5) | 19(4.4) | 2(0.5) | 38(8.8) | |
| | 합계 | 3(0.7) | 34(7.9) | 195(45.3) | 166(38.6) | 32(7.4) | 431(100) | |
| 월소득 | 100만원 이하 | 0(0) | 4(1.0) | 21(5.1) | 18(4.4) | 0(0) | 43(10.5) | $x^2 = 26.548$ (.047**) |
| | 101-200만원 | 3(0.7) | 6(1.5) | 59(14.4) | 38(9.2) | 4(1.0) | 110(26.8) | |
| | 201-300만원 | 0(0) | 12(2.9) | 58(14.1) | 66(16.1) | 14(3.4) | 150(36.5) | |
| | 301-400만원 | 0(0) | 8(1.9) | 36(8.8) | 30(7.3) | 10(2.4) | 84(20.4) | |
| | 401만원 이상 | 0(0) | 1(0.2) | 8(1.9) | 11(2.7) | 4(1.0) | 24(5.8) | |
| | 합계 | 3(0.7) | 31(7.5) | 182(44.3) | 163(39.7) | 32(7.8) | 431(100) | |
| 거주지역 | 경북(달성군) | 2(0.5) | 11(2.6) | 54(13.0) | 26(6.3) | 3(0.7) | 100(23.1) | $x^2 = 16.854$ (.002**) |
| | 대구 | 1(0.2) | 21(5.0) | 133(32.0) | 137(32.9) | 28(6.7) | 331(76.9) | |
| | 합계 | 3(0.7) | 32(7.7) | 187(45.0) | 163(39.2) | 31(7.5) | 431(100) | |

<표-1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구분 | | 매우 불만 | 약간 불만 | 보통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 합계 | 유의 확률 |
|----|------------|--------|---------|-----------|-----------|---------|-----------|--------------------------|
| 직업 | 제조업(자영업) | 1(0.2) | 3(0.7) | 18(4.2) | 10(2.3) | 2(0.5) | 34(8.0) | $x^2 = 20.286$ (.208) |
| | 사무-관리(공무원) | 2(0.5) | 13(3.1) | 115(27.0) | 84(19.7) | 18(4.2) | 232(54.5) | |
| | 판매-서비스업 | 0(0) | 4(0.9) | 22(5.2) | 18(4.2) | 3(0.7) | 47(11.0) | |
| | 주부 | 0(0) | 8(1.9) | 19(4.5) | 14(3.3) | 7(1.6) | 48(11.3) | |
| | 학생(기타) | 0(0) | 2(0.5) | 30(7.0) | 30(7.0) | 3(0.7) | 65(15.3) | |
| | 합계 | 3(0.7) | 30(7.0) | 204(47.9) | 156(36.6) | 33(7.7) | 431(100) | |

5.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본연구의 측정지표인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도시 편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주민관계성 측정 지수들이 상호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주민관계성 만족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Cronbach α 값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도 측정을 위한 좋은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값이 탐색적 연구에서는 0.5-0.6정도, 기초연구에서는 0.8정도, 그리고 특정한 검증연구에서는 0.9 이상이어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Cronbach α 값은 전체적으로 척도의 질을 평가하는 계수로 사용된다. 지역사회의 주민관계성 만족도를 측정, 분석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이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고유 값이 1.0이상으로 5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그 결과는 <표-11>과 같다. 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0.5이상인 20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그 방법은 Varimax 회전후의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20개 문항을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몇 개의 동질적인 요인으로 묶었다. 그리고 한 변수의 공통성(commonality)은 그 변수의 분산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가리키며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일반적으로 .50 이상이어야 하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문항을 무시하고 나머지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11>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요인(F1)과 요인(F5)까지 2개~7개의 변수가 적재되었고 요인을 설명해주는 분산의 양인 고유 값은 4.539~1.215로 나타났고 신뢰계수는 각각 .962-.779로 나타났다.

-
- 6) Cronbach α 값은 전체적으로 척도의 질을 평가하는 계수로 사용된다. Cronbach α 의 값이 낮다는 것은 항목의 표본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반대로 α 값이 높다는 것은 연구를 위해 구성된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모집단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7) 독립변수간의 상관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의 절대 값이 0.37정도로 나타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SAS에서 다공선성문제진단결과 UIF(분산팽창요인)의 값이 약 9.4%로 나타나 다공선성의 존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주민관계성 측정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측정문항 | F1 | F2 | F3 | F4 | F5 |
|------------------|-------------|-------------|--------------|--------------|-------------|
| | 주민편입 만족도 | 주민화합 만족도 | 행정서비스 만족도 | 정주·생활 만족도 | 지역발전 만족도 |
| 편입의견(V1) | .962 | .085 | .345 | .128 | .117 |
| 편입만족(V2) | .962 | .229 | .182 | .110 | .037 |
| 주민화합(V3) | .669 | .779 | .125 | .361 | .113 |
| 협오시설입지(V4) | .660 | .779 | .106 | .231 | .264 |
| 행정기관방문경험(V5) | .632 | .738 | .794 | .788 | .180 |
| 행정서비스지원태도(V6) | .628 | .667 | .762 | .722 | .171 |
| 민원처리, 행정정보화(V7) | .604 | .661 | .816 | .698 | .151 |
| 행정정보공개(V8) | .557 | .655 | .788 | .589 | .122 |
| 주민대응성(V9) | .546 | .654 | .829 | .561 | .143 |
| 민원업무처리속도(V10) | .543 | .538 | .810 | .516 | .032 |
| 주민행정참여도(V11) | .501 | .538 | .767 | .382 | .057 |
| 주민생활(V12) | .272 | .060 | .104 | .938 | .741 |
| 삶의질(V13) | .213 | .233 | .220 | .938 | .698 |
| 지역발전수준(V14) | .901 | .893 | .850 | .766 | .762 |
| 발전방향기여(V15) | .140 | .125 | .022 | .276 | .732 |
| 주민편입만족도영향(V16) | .247 | .190 | .383 | .145 | .831 |
| 주민화합만족도영향(V17) | .197 | .172 | .270 | .123 | .820 |
| 행정서비스만족도영향(V18) | .292 | .208 | .119 | .231 | .729 |
| 정주·생활만족도영향(V19) | .112 | .223 | .274 | .018 | .855 |
| 지역발전영향(V20) | .443 | .286 | .326 | .195 | .838 |
| 아이겐값 | 1.851 | 1.215 | 4.440 | 1.761 | 4.539 |
| Cronbach α(신뢰계수) | .962 | .779 | .794 | .938 | .804 |

6. 회귀분석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후 두지역 주민의 관계성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인 <표-14>을 보면 R²이 .629이고 F값이 174.198로 P<.001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관계성 영향요인으로 정주·생활만족도가 (β =.433)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β =.361), 주민편입만족도(β =.112), 주민화합만족도(β =.034)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이후 도로, 교통, 주택, 상수도, 환경, 교육, 복지,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의 영역에서 더 나아졌는지에 대한 정주의식 및 생활, 즉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14> 주민관계성의 지역발전 영향요인

| 종속변수 : 지역발전에 대한 만족도 | | | |
|--------------------------------------|----------------|------|-----------|
| 독립변수 | 회귀값(β) | 표준오차 | t값 |
| 편입에 대한 주민만족도 | .112 | .038 | 2.907** |
| 편입에 대한 주민화합만족도 | .034 | .043 | .795 |
| 편입후의 행정서비스만족도 | .361 | .042 | 8.640*** |
| 정주·생활에 대한 만족도 | .433 | .038 | 11.433*** |
| 상수 | 0.05 | | |
| R ² (수정된 R ²) | .629(.625) | | |
| F값 | 174.198(.000) | | |

*P<.10, **P<.05, ***P<.001

IV. 주민관계성 만족도 분석결과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그 척도로써, 주민관계성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편입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불만요인이 많이 존재하였지만 15년 세월이 지난 현재 대구시가 달성군을 대구시의 중심 생산도시로 첨단기업도시로, 계획함으로써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민화합만족도는 주민편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편입이후 주민화합도 인식상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편입에 대한 의견 표명보다 편입이후의 지역자치 행정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아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특히 혐오시설입지 등의 측면에서 주민화합에 많은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서비스만족도는 편입이후 행정서비스의 지원상태, 행정기관 접근용이성, 행정정보의 접근성, 대주민 행정대응성, 민원업무처리속도, 주민참여도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만족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편입이후 개선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행정정보화 수준의 향상으로 기인되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달성군 거주 시민들이 시청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의 번거로움,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한 의사소통과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정주·생활만족도는, 결국 달성군의 편입은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의 편입을 통하여 행정구역의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분석결과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및 환경 혐오시설 유치와 입지,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발전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편입이후 처음에는 높은 기대감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지지부진한 발전은 달성군 주민들에게 많은 불만을 갖게 하였으나 최근 대구시의 생산 중심지로, 연구첨단 산업의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조성 개발 계획 등으로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달성군의 편입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monitering)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는말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후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관계성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주민의 관계성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분석에서 보여지듯이 주민편입만족도와 주민화합만족도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정주·생활만족도에서 더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행정구역 개편이론 중에서 보다 설명력이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 정주·생활권이론이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편입이후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편입과 주민화합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별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아직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만족도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혐오시설의 입지 선호도에 있어서 여전히 편입전과 크게 차이 없이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결국 편입이후 15년 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혐오시설입지, 지역개발측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편입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효과측면은 더욱 보완하고 긍정적 효과측면은 더욱 발전, 고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첫째, 기존 대구의 중심도시와 달성군의 배후 농촌지역의 지역발전의 격차로 인하여 편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민통합과 화합에는 상당한 장애요소가 상존하여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의 극복과 주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참여에 대한 배려와 전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이행조건 등을 착실히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달성군 지역 개발에 우선적 투자와 이들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달성군 지역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불신을 없

애고 같은 대구 광역 시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구시의 혐오시설 등의 달성군 지역으로의 이전과 입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어 불만의 증폭으로 주민관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편입이후 행정서비스만족도와 지역발전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행정구역의 광역화로 인해 다소 행정기관의 접근성이 불편해진 달성군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통해 더욱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행정 순회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 그리고 행정기관 방문시 단시간에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불편사항 의견수렴 등, 신속하고 편리한 열린 행정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함의에 따른 제언을 하였지만 본 논문은 적은 설문대상자수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 및 본 논문의 정성적·질적 분석과 함께 통합 전후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합한 종합적인 평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 고 문 헌

- 강용기. (2000). 지방자치단체 단일계층화론에 대한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과 2000년도 기획 세미나 발표논문집 6월.
- 경기개발연구원. (1997).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행정수요 분석과 기능 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평택시를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 곽상욱. (2009).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남부지역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논문.
- 김만제. (1994).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론과 현실론. <지방행정 연구소>.
- 김병국. (1997). 영국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과정: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선기. (1995). 통합시의 배경과 과제-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
- 김영모. (1996). 도농통합도시의 도시개발방향에 대한 제언-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
- 김영재. (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도와 시·군 개편기준과 대안 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논문.
- 김익식. (1995).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과 과제 토지연구. 한국토지공사.
- 김재홍. (2000).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9(2): 47-66.
- 박기관. (2006). 도·농통합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원주시 10년의 통합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3): 21-50.
- 박기관. (2007).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농 통합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DEA의 효율성 측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2): 65-93.
- 박기춘·한상연. (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현황 및 추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 99-121.
- 박종관. (2009).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공공행정연구>. 10(2): 107-134.
- (1999).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인명·이명석·최재승. (2000). 시·군통합의 성과평가: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1): 139-162.
- 소순창. (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지방행정연구>. 24(4): 29-58.
- 안성호. (2009). 지방행정자치체제의 개편과 자치단위의 규모.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논문집.
- 유재원·손화정. (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 발상의 전환. <지방행정연구>. 24(4): 59-84.
- 육동일. (2005). 지방자치계층구조 및 구역개편의 방향과 과제. <지역개발논총>. 17: 42-72.
- 이달근. (1995). 행정계층 및 구역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3(1): 145-159.
- 이시중. (1994). 시·군통합추진상황과 향후과제. <지방자치>.
- 이재원. (1997). 통합시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공간과 사회>. 8.
- 정덕주. (2007). 지방행정계층의 개편에 관한 고찰. <청춘논총>. 8: 221-246.
- 정재욱. (2011).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통합 창원시: 비전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갈등관리 자료집. 31-81.
- 조성주·이재기. (2000).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논집>. 5(1): 113-142.
- 초의수. (1994). 행정구역개편과 지역발전. <지역사회연구>. 2: 213-240.
- 최탁인. (2006). 지역사회의 주민관계성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보학회지>. 11(4): 207-219.
- 최봉기. (2010).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야 정당안의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2): 29-54.

- 최양부·윤원근. (1988). 행정구역합리적 조정방안: 정주체계에 따른 도·농 통합적 행정구역의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이용만. (1984). 지방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와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 정주생활권 개념에 의한 국토인식과 노동조합. <지방의 재발견>. 민용사.
- 최외출·송두범. (1993).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개발수요조사 분석-경상북도 고령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18(1).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 한국개발연구원. (1987).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 개발.
- 홍준현. (1998).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방안. <한국 행정연구>. 제7권 제1호.
- 홍준현. (2005).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299-324.
- Alonso, W.(1975). The Economics of Urban Size, in Friedman, J. and Alonso, W. ed.. *Regional Policy : Reading in Theory and Applications*. Cambridge. Mass : M.I.T. Press.
- Blair. J. P. and Z. Zhang.(1994). Ties that Bind Revisited.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8:4-10.
- Blomquit. W. and R. B. Parks.(1995). Fiscal, Service, and Political Impacts of Indianapolis-Marion Contry's Univgov. *The Journal of Federalism*. 25: 37-54.
- Byrne, T., *Local Government in Britain*. London: Penguin Books. 1994.
- Feiock, R. & J. Carr. (1977). A Reassessment of City/Country Consolidation: Economic Development Impacts.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29(3): 166-171.
- Friedmann, J., The Active Community: Toward a Political-Territorial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 in Asi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81.
- Fox, W. & T. Gurley.(2006). Will Consolidation Improve Sub-National Governmen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913.
- Held, D.(1991). The Democracy, Nation-states and Global System. D. Held(ed.). *Political Theory Toda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Lyons, W. E. and Lowery. D. (1989). Government Fragmentation versus Consolidation: Five Public Choice Myths about how to Create Informed. Involved and Happy Citize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New Work : Harcourt Braco Javanovich.
- Ostrom, E. (1972). Metropolitan Reform : Propositions Derived form Two Tradition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53.
- Rogers. S. (1990).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Harlow. U.K: Longman.
- Wolman, H. (1990). Decentralization : "What it is and why we should care : in R. S. Benett(ed.).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and Market : Toward a post-welfare Agenda*. Oxford. U.K: Clarendon.

[저자소개]

金正憲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논문 : 현대행정국가의 복지정책결정구조)하고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부전공은 정책학, 복지정책론, 복지국가론, 복지행정론, 행정PR론 등이다.

대구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 정보공개심의위원, 울산광역시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정부학회 부회장,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및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현대사회의 행정학(2002), 복지행정론(2003), 복지정책론(2004), 현대행정PR론(2006), 정책학NOTE(2007),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CI구축 및 PR전략(2004),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관계성 측정과 자치행정PR전략(2005),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성과 평가(2007), 지방정부의 위기관리를 위한 행정PR적 대응분석(2009),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2010) 등이 있다. <E-mail : jhkim@daegu.ac.kr>

